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제1독서

사도 1,1-11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화답송

시편 47(46),2-3.6-7.8-9

(◎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에페 1,17-23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마태 28,16-20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때에 ¹⁶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¹⁷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¹⁸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이다. 교회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부활 제6주간 목요일에 지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부활 제7주일로 옮겨 지낸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대중 매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도직을 수행하고자 각 나라마다 홍보의 날을 제정하기를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1967년 ‘홍보의 날’이 제정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기존의 ‘출판물 보급 주일’과 통합하여 해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홍보 주일’로 지내고 있다.

묵상

너희와 함께

목놓아 부르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늘 높이 사라지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눈물을 흘리며 작아져 가는 어개를 두드리며

“나 여기 있노라, 떠나지 않았노라” 알려주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복음 묵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발현을 목격하고 체험하였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체험할 거리가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보고 느낀 이들이 지금 갈릴래아의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더러는 의심하였습니다. ‘의심하였다’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의 본디 의미는 ‘주저하였다’입니다.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주저합니다. 신앙이란 그런가 봅니다. 애써 노력해서 깨닫고 이해하였다 싶다가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막막한 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성인이 이른바 ‘어두운 밤’과 ‘사막’을 겪었고, 또 지나왔습니다. 신앙하면서 체험하는 의심과 주저함은 신앙의 반대말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입니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고, 의심하고 주저하다가도 다시 힘을 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안에 늘 함께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멋지고 잘난 이들을 선별하시어 화려한 본보기로 내세우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주저하는 이들의 나약함 안에서 당신께서 몸소 움직이시고 가르치시고자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 삶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삶에 빈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빈자리에서 천상과 지상이 온전히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승천의 참된 의미입니다.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기도는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조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기도에 관한 교리 교육을 계속 이어갑시다. 생명,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인간의 마음을 기도로 열어줍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는 장엄한 감사의 찬미가와 비슷합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선과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후렴구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느님이 당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명으로 부르시니,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낮과 밤이 반복되게 하시며,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다양한 동식물로 다채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혼돈을 빠르게 물리치는 이 풍요로운 숲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등장은 만족과 기쁨을 증폭시키는, 넘쳐나는 환희를 자아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좋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인간의 마음 안에 기도를 불러 일으키는 첫 번째 움직임을 만들어 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566항 참조). 우리가 일반알현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시편 제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4-5절) 시편

저자는 자기 존재의 신비를 묵상하고,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 천체 물리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광대함을 보여줍니다 - 어떤 사랑의 계획이 이처럼 강력한 작품 뒤에 있어야 했는지 묻습니다. (...) ‘이 광대무변 안에서 인간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또 다른 시편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시편 89,48 참조)라고 말합니다. 이어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 존재이며, 매우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전체에서, 인간은 아름다움의 풍요로움을 알고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태어나 죽고,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작은 존재인 인간은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알고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도는 ‘놀라움’ 혹은 ‘경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우주의 크기와 비교하면 극히 미소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업적조차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기도 안에서 자비심을 강하게 체험합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의 비밀은 누군가가 우리의 눈빛에서 만나는 자비로운 눈길 안에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썼다고 말합니다(시편 8,6 참조). 하느님과의 관계가 개별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의 영예로움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거의 아무것도 아니고 미소하지만, 그러나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임금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온갖 괴로움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 안에서 기도의 선물을 질식시킬 위험에 빠지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감사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일몰과 꽃 (...) 등을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체험이 어쩌면 성경의 첫 페이지가 쓰여진 기초일지도 모릅니다.

창조에 관한 위대한 성경의 기록이 작성될 때만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무력으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국도, 성전도, 사회 생활과 종교 생활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창조의 위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누군가는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희망의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희망은 커지고 이어집니다.** 저는 기도가 희망의 문을 열어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 희망은 존재하지만, 나의 기도로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진리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 삶은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은총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먼저 자기 자신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항상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희망이 낙담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고, 비록 그 시간과 방법은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에 빛의 광채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날에도 태양이 그치지 않고 그들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주고,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을 밝혀줍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큰 고통의 시기에, 기도는 여러분을 밝혀줍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나쁜 소식과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삶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슬픔과 비통으로 인생을 소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우주를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도록 이끄는 마음의 동요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서 하느님의 서명을 읽을 수 있는 위대한 임금의 자녀들이며,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피조물은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그 피조물 안에는 그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https://www.vaticannews.va/>>

COVID-19 백인현 주임 신부님 메시지

✝ 찬미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 미사가 금지된 지 두 달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치기도 하고 힘겹지만, 주변의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며 그래도 하루하루를 기쁨과 보람으로 의미 있는 행복을 찾으며 잘 견디어 주시는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고,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에 비추어 보아 아직은 공동체 미사가 재개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체 미사를 다시 거행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미사가 재개되기를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기다려온 바이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주교님께서서는 교구의 지침에 따라 **신자들이 안전하게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본당 주임 신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공동체 미사를 재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신자들의 **주일 미사와 대축일 미사에 참여할 의무에 대해서도 관면이 계속 유지**되고, **생방송 미사도 계속**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성 정 바오로 성당은 교구의 지침과 주 정부와 카운티의 행정 지침을 기준으로 모든 신자들이 안전하게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공동체 미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공지를 통해 5월 30일부터 미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짐을 감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사 재개로 인한 신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공동체 미사 재개를 잠시 연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그때 다시 미사 재개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자 분들께서는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미사가 재개되어도 미사에 참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별도 공지)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리 잘 숙지하시고, 미사가 재개되었을 때 철저히 잘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온갖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코로나19의 극복과 조기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 치유와 종식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님 승천 대축일에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임 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할 수칙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기침이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신자,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최근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온 신자는 집에서 **방송미사, 목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성당 정문으로 입장 후 체온을 측정해야 합니다. (**99.5도 이상 입장 불가**)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봉사자가 세정제를 뿌려 줍니다.)
- ▶ 타 본당 신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으로 표시된 좌석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신자들은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평화의 인사를 할 때는 손을 잡지 않고 가벼운 목례로 대신합니다. (**미사 중 신체적 접촉을 피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한 방역과 환기를 위해서입니다.)
- ▶ 성당 내외 모든 장소에서 일정한 간격 유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예방을 위한 본당의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자선 활동의 날 행사

- 지난 5월 23일 본당에서는 프란치스코와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본당 자선 활동의 날이 실시되었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서는 시작 기도에서 "이 뜻 깊은 행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본당의 신부님들과 회장단은 300인분의 쌀, 라면, 감자와 오렌지를 비롯해 도네이션 받은 1000개의 면 마스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당 웹사이트 전면 개편

-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본당 웹사이트 개편 작업을 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작업에 많은 차질이 있었지만, 새롭게 단장하고 대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25주년 준비위원들과 본당 문화부에 감사드립니다.

사무실 업무 안내

- **사무실 휴무: 5월 25일(월) 메모리얼 데이**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당 사무실은 예전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장례예식, 개별 미사 지향, 교무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3-968-301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5월 28일(목) 오후 5:00-6:00

•특집:

5월 29일(금) 저녁 8:00-9:00

김수환 추기경 다큐멘터리 (1)

5월 31일(일) 오전 6:00-7:00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5월 27일(수) 오전 6:15-6:45 | 5월 30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9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현훈 (마르코) 센터빌,챌러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